

공공시설·물품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시설·물품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



공공시설·물품 개방확대로 국민 일상의 편익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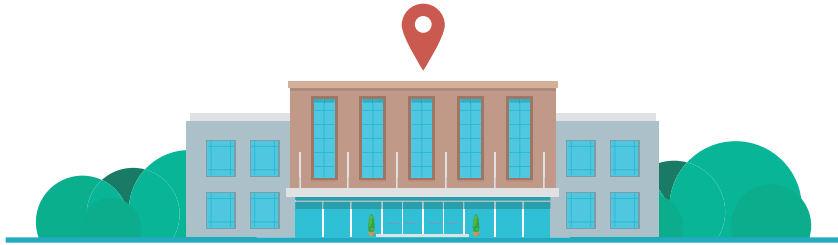
머리말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편익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8월 '정부 24'를 통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기관별로 제공하는 공공 개방 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개방시설·물품을 한 곳에서 검색 및 예약·결제 가능한 통합관리플랫폼 「공유누리」시스템을 구축해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누리」에서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문화 등의 시설과 연구·실험장비, 생활공구, 장난감, 혈압측정기 등 물품 15만여 점을 등록·대여하고 있다.

「공유누리」제공 이후 등록된 시설과 물품은 갈수록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소모임 활동을 위한 회의 공간과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도심에서는 주차장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장,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률 증가도 눈에 띄었다. 물품 중에서는 생활공구, 라돈측정기, 캠핑용구 등의 대여 수요가 높았다.

이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사업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 편익을 높이는 우수 서비스를 발굴해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누리」에서는 일상적인 공공자원 개방 외에도 국민 이동이 많은 설·추석 명절에 공공기관의 무료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공유 지도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일상,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701개의 국·공립 캠핑장과 휴양림 정보와 함께 4만 1,939개의 전국 무더위 쉼터 정보, 1만 7,743개의 도시공원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개방·공유하는 「공유누리」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포털에도 개방해 국민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누리 등록 시설 및 물품 현황



총 기관수: 476개



총 시설 및 물품 현황: 146,614개

(2023.01.31. 기준)

구분			회의실·강당	주차장	체육 시설	숙박·문화시설	연구·실험장비	물품 등
	기관수	소계						
중앙행정기관	35	4,175	1,330	1,798	557	362	44	84
지자체	244	50,078	9,202	6,127	5,904	4,524	21	24,300
공공기관	197	4,175	681	700	409	722	89,616	233
합계	476	146,614	11,213	8,625	6,870	5,608	89,681	24,617

*물품: 캠핑용품, 생활공구, 유아용품, 장난감, 휠체어, 혈압측정기, 라돈측정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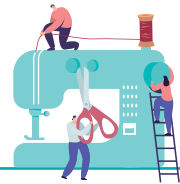
목차 | Contents

I 일상편의 지원



- 경남 의령군 | 우리 마을엔 공유 빨래방 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세탁 서비스 제공 08
- 서울시 성북구 | 함께 쓰는 주차장,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11

II 소상공인 지원



- 서울시 성북구 | 지역 패션산업과 청년창업, 스마트한 지원으로 성북의 미래까지 키운다 16

III 어르신 지원



- 광주광역시 남구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로 건강하게 여는 100세 시대 20

IV 청년 지원



- 경남 통영시 | 주거 부담을 낮춘 청년 주거 공유서비스로 청년이 살기 좋은 통영으로 거듭나다 24
- 광주광역시 북구 | 불 꺼진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창업의 꿈을 밝히다 27
- 서울특별시 | 무료 정장 공유로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다 30

V 육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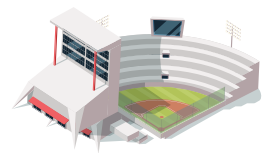
경남 통영시 역할을 다한 이동민원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문화놀이터가 되다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고충, 육아용품·돌봄공간 공유로 함께 나눠요!	37
부산광역시 ‘들락날락’할수록 커지는 즐거움, 신박한 놀이터가 있는 시청으로 놀러 오세요!	41

VI 문화공간 지원



경남 거창군 유휴공간에 불어넣은 생명력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유공간으로 재탄생	46
경상남도 닫혀있던 관사와 도민의 집이 모두를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50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양한 재능과 문화예술 나눔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나눠요!	53

VII 공유문화 조성



경기도 광명시 민관 협치로 지역공유문화를 더 풍성하고 더 활기치게	58
광주광역시 빈 공간을 지역공유 중심 공간으로, 시민의 발걸음으로 활기찬 공유문화 아지트	62

VIII 커뮤니티



경남 의령군 공간의 변신은 무죄! 방치된 공공시설에서 주민이 북적이는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66
--	----



일상편의 지원

경남 의령군 | 우리 마을엔 공유 빨래방 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세탁 서비스 제공
서울시 성북구 | 함께 쓰는 주차장,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Case

01

우리 마을엔 공유 빨래방 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세탁 서비스 제공



경남 의령군

주민 불편사항 개선 · 지역사회
문제 해결



Check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유 빨래방 조성, 불편 사항
개선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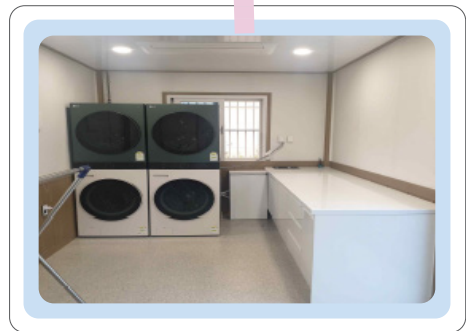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부족한 공공 편의시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경남 의령군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농촌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편의시설이 부족한 벽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빨래방’

주민들의 의견은 각 읍면 담당자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직접 대면해 청취하는 방식으로 취합했다. 그 결과, 의령군 농촌 지역에 가장 부족한 기초 편의시설은 빨래방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와 중증 장애 가구의 경우 거동의 불편으로 빨래를 제때 세탁해 입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청결은 물론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을 위한 기초 편의시설로 공유 빨래방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에 나섰다.



공공시설 개방·공유를 통한 공유 빨래방 개소

의령군 용덕면의 ‘행복빨래방’은 그 결과물로, 2022년 7월 19일 개소식을 가졌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치된 행복빨래방은 이후 독거 어르신과 중증 장애 가구 등에 무료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안부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어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도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시설의 추가 개방 및 공유로 공유 편의시설 확대

행복발래방은 2022년 주민자치회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했다.

앞으로도 의령군은 공유누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발굴해 개방·공유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Case
02

함께 쓰는 주차장,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



Check

스마트 공유 주차 사업을 통해 주차면을 공유함으로써
주차장 건립 공간 부족과 주차 1면당 소요되는 예산 문제
해결 및 한정된 주차 공간 활용의 극대화로 주차문화 개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체감한 공유의 필요성

서울시 성북구는 재개발, 각종 공사, 법령 사항의 강화 등으로 인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284면의 주차 구획 면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차 1면 확보를 위해서는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주차장 확충과 같은 물리적 해결책은 부지 및 예산확보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성북구는 공유의 측면에서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섰고,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이용하는 공유 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안 쓰는 시간에 나눠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성북구는 먼저, 성북동길의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2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그간 성북동길의 노상주차장은 정기권자 및 장기주차 차량의 선점으로 외부 방문객의 이용 가능 주차면이 적어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행히 lot 센서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성북동길 주차장의 낮시간 및 주말 이용객이 해당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주차공유 수치는 또한 누적 실적 1만 7,16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이용을 위해 '파킹프렌즈' 앱을 통해 주차 공간 제공자는 공간정보와 공유시간 설정을, 주차 공간 이용자는 주차공간 검색 및 요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차 공간 제공자는 공유실적(이용 시간)에 따라 주차면 순환배정 신청 시 배점 추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lot센서 기반 성북동길 주차장



lot 공유 주차문화 리플릿



안 쓰는 공간을 나눠요! 부설주차장 개방

한편, 성북구는 2008년부터 학교, 아파트,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유 대표와 구청 간 주차장 개방 약정을 맺어왔다. 이를 통해 대표(건물주)에게 주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및 운영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2022년 12월 기준 총 60개소, 1,003면을 개방하고 있다.

<2022년 개방 시설 현황>

계		일반건축물		학교		종교시설		아파트		기업체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60	1,003	17	158	5	62	19	278	16	380	3	125

아울러 더 많은 개방시설 발굴을 위해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점으로 개방시설물을 조사했으며, 아파트, 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또한, 건물주나 개방시설 제공 자에게 앞서 언급한 주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및 운영수익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건물주와 구청 간 개방 협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및 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성북구는 주차장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22년 9개소 개방을 통한 144면 주차 공유공간 확보>

개방 부설주차장	지원 내용	지원금 (단위: 천 원)	개방 면수	비고
길음서희스타힐스	형광등→LED로 교체, 유도등 교체	9,996	10	신규
보문중앙교회	차단기, CCTV, 지정주차 표시기 설치	4,155	4	신규
신암교회	차단기, CCTV 설치	6,424	5	신규
SH장위다경빌	주차 차단기 설치	9,442	15	신규
소선유빌리지	기계식주차장치 도색작업	7,000	7	신규
동암교회	주차 차단기, CCTV설치	13,200	13	신규
월곡3SH빌	카스토퍼 교체, CCTV 설치	6,004	20	연장
길음동부센트레빌	CCTV 6대 증설	3,000	50	연장
하늘이음교회	주차 차단기 교체	7,000	20	연장
합계		66,221	144	



공유로 만들어 가는 주차 공간

공유주차 서비스 사업은 변화가, 상업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역할을 대신한다. 성북구는 주차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축물, 학교,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성북구 마을버스 14대를 이용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이 주차공유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성북구 | 지역 패션산업과 청년창업, 스마트한 지원으로 성북의 미래까지 키운다



Case

01

지역 패션산업과 청년창업, 스마트한 지원으로 행복의 미래까지 키운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스마트패션 산업센터



Check

스마트장비실, 공동작업공간, 샘플제작실 등을
개방하여 소공인들에게 무상 공간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성북의 봉제산업을
이끄는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 기대



봉제 시장에 활기와 동력을 부여할 공간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패션 봉제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 취약한 시설 등의 문제점까지 부각하면서 봉제 시장에 활기와 동력을 부여할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 성북구는 봉제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집적지구에 성북스마트 패션산업센터를 개설했다.



청년 소공인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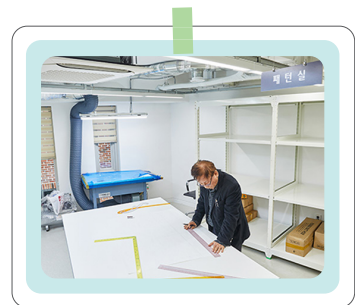
성북구 보문동에 소재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산하에 스마트장비실, 공동작업공간, 샘플제작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장비 이용이 가능하며, 소공인에게는 디자인 패턴 및 샘플 제작을 지원한다. 스마트장비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필요한 봉제업체에게는 자동재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재단실 이용 건수는 2022년 12월 기준 총 2,215건으로 캠페단 836건, 마카출력 735건, 패턴입출력/변환 644건으로 고가의 스마트 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공인 봉제업체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전경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스마트장비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패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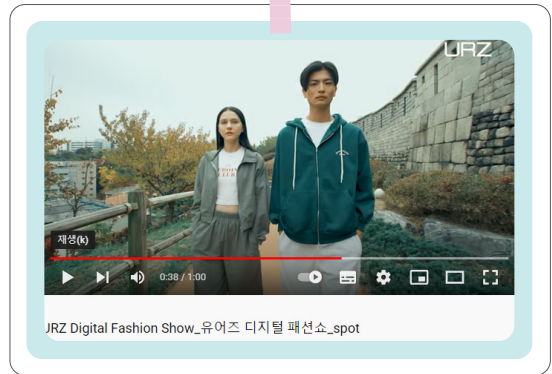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공유 플랫폼 역할

그런가 하면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및 미래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 의류 제작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기 7명, 2기 5명, 3기 8명으로 총 20명이 수료를 마쳤다. 교육 수료 이후에도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1년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1년간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명의 인큐베이팅 디자이너는 여름 시즌 기획전 개발 및 AK 백화점몰 입점 연계 등 창업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또, 공동브랜드(유어즈)에 참여한 2개의 업체(노디코마, 유닉에이)는 서울패션코드 패션쇼 및 부스, 강남 신세계 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참가해 패션 산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성북구 지역 공동브랜드인 유어즈는 성북패션의 제조경쟁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자체 기획한 상품을 성북구의 명소인 한양도성, 성북구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김종업 건축문화의집 등을 배경으로 선보이는 런웨이 패션쇼 콘셉트의 영상을 제작했다. 기획된 상품들은 홈페이지 유어즈샵에서도 구매 가능하며,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도 쇼룸을 열어 전시했다.



유어즈 디지털 패션쇼(한양도성 배경)

현재 유어즈에는 청년 인큐베이팅 입주기업을 포함한 24개 사가 입점해 있으며, 7,676만 7,000원의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성북 패션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이에 힘입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공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공동작업실 및 장비 이용 등을 기반으로 소공인 및 주민들의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발전해왔다. 향후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 창업을 꿈꾸는 청년과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 및 공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공간을 넘어 학습, 판매 등 지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해 소공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나아갈 계획이다.



어르신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로 건강하게 여는 100세 시대



Case

01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로 건강하게 여는 100세 시대



광주광역시 남구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개소



Check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 운동, 놀이용품을
지원하고자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개소,
어르신 여가문화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100세 시대,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는?

광주광역시 남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8.9%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이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여가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완화로 경로당 이용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여가에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이 부족해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데 그치고 있다. 남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관내에 소재한 250여 개 경로당으로부터 어르신용 놀이용품이나 실내 운동기구 지원을 요청받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개소

당초 남구는 관내 경로당 250여 개에 놀이용품과 실내운동기구를 구비해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고가의 운동기구 등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결국 주어진 예산으로는 경로당 측의 수요를 일일이 충족할 수가 없다고 판단, 놀이용품을 대여하는 취지의 공유센터 운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후 운영을 어디에 맡길지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와 손잡고 물품 구매를 시작으로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물품 종류와 수량은 경로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회와 협의한 후 결정했다. 공유센터는 남구 월산동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건물에 마련되었으며, 사업비로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했다.



경로당별로 무상으로 물품 및 시설 대여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는 놀이용품, 실내 운동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일괄 배치해 각 경로당별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이다. 현재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에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칠교놀이, 체스, 바둑 등 다양한 놀이용품과 활기찬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접이식 탁구대, 미니 당구대, 볼링, 한궁 등 간단한 운동 장비를 포함한 총 21종 213개 물품이 구비되어있다.

물품 대여는 관내 경로당 회장·총무의 책임대여제로 운영되며, 1회 방문 시 최대 2점 이내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한 달로 1점만 대여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기 물품의 경우 각 경로당이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 대기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와 어르신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해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 공유공간으로 운영

공유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재미를 못 느끼고 금방 싫증을 낼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지회 직원들이 직접 모든 물품 사용법을 익힌 다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용설명서를 만들고 있다. 또, '실버노래자랑', '백세 노래자랑'으로 유명해진 유튜브 '으뜸효남구 TV' 채널에 놀이·운동용품에 대한 사용설명 및 놀이용품 대여방법, 대여장소 등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업로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후 공유센터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 노인단체 및 개인 대여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추가 구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이용품을 활용해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놀이문화를 즐기면서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청년 지원

경남 통영시 | 주거 부담을 낮춘 청년 주거 공유서비스로 청년이 살기 좋은 통영으로 거듭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불 꺼진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창업의 꿈을 밝히다

서울특별시 | 무료 정장 공유로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다



Case

01

주거 부담을 낮춘 청년 주거 공유서비스로
청년이 살기 좋은 통영으로 거듭나다



경남 통영시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



Check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세어하우스를 조성하여 청년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통영 정책을 돕는 계기 마련





청년 인구 유입의 걸림돌, 주거비용 부담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에는 주거 독립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주거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이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로 작용한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주거비용 걱정 없이 취업 준비와 학업에 몰두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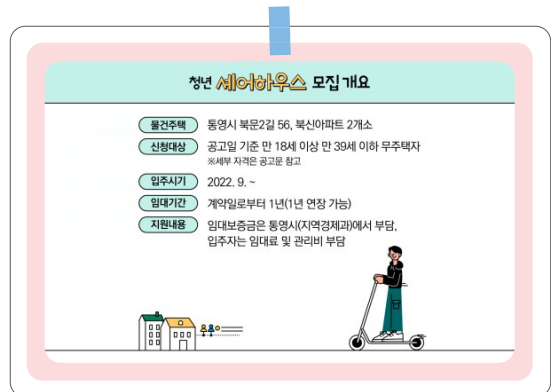
시영아파트, 청년의 셰어하우스가 되다

통영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복신아파트)를 청년 셰어하우스로 조성했다. 셰어하우스는 청년 2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침실은 각자 사용하며, 거실과 화장실은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사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오픈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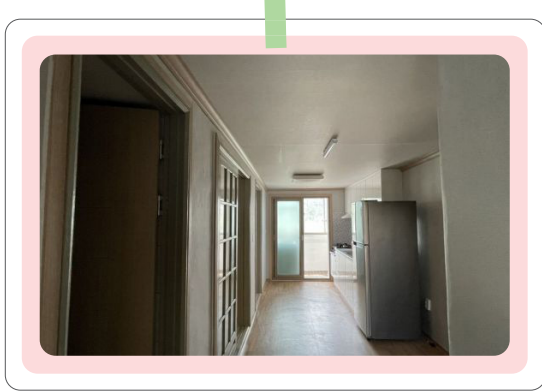
개방·공유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다

통영시는 주로 '공간'을 공유하는 기존 개방·공유시설의 범위를 넘어서, '주거'를 공유하는 형태로 개방·공유시설의 개념을 확장했다. 또한, 시영아파트에 청년 셰어하우스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주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중 보증금은 통영시에서 부담하고, 임대료는 월 7, 8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입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청년 세어하우스 모집 개요

- 모집인원** 2명(남 1명, 여 1명)
 ※ 청년 세어하우스는 2개소(남 1개소, 여 1개소) 운영.
 현재 각 호별 1명(남 1명, 여 1명) 거주 용도로
 각 호별 남 1명, 여 1명 추가 모집
- 신청기간** 2022. 9. 14. ~ 모집 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제출
 (통영시청 2층사 지역경제과)
 ※ 통영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 참고
- 문의사항** 통영시청 지역경제과 ☎ 056-650-5222

청년 세어하우스로 청년 인구 유입을 복돋다

통영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인 북신아파트 청년 세어하우스 2개소를 시작으로, 청년 주거 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시설을 발굴해 세어하우스의 양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노력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 유입에 큰 걸림돌이었던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거 안정화를 실현, 청년들의 통영 정착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Case
02

불 꺼진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창업의 꿈을 밝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과 지역공동체 활용 공유공간
'청년공작소' 조성



Check

민관이 협업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청년창업과 지역공동체 활용 공유공간
'청년공작소'를 조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책은?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사회복지예산 1등(68.1%) 지자체로, 광주 전체 14개 영구임대아파트 중 46.3%인 5개 단지 7,120세대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북구의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층 밀집화와 입주민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단지 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소외 등 지역사회에서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단지 내 일부 상가 공간은 수년간 공실로 방치되며 쓰레기가 가득 쌓여 우범지대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북구에서는 2021년 전담부서인 공공임대복지과를 신설해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슬럼화를 막고 취약계층인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던 중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을 지역 청년들과 입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영구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청년공작소’ 공유공간으로

먼저, LH와 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부터 시작했다. LH 또한 우범화되어가는 상가 공실이 오랜 골칫거리로 작용했기에 금세 공간 사용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과 연계해 공유공간 리모델링 국·시비 사업비를 확보했다. 덕분에 2022년 3월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내에 ‘청년공작소’를 조성, 청년창업 공간 및 주민공동체 활동 공유공간 15실을 마련했다.

- 오치주공 1단지: 청년창업 공간 7실, 공동작업장 1실
- 두암주공 4단지: 청년창업 공간 5실, 공유 오피스 1실, 영상 스튜디오 1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의 활성화, ‘공간공유’에서 답을 찾다

이렇게 조성된 공유공간 ‘청년공작소’ 내 입주기업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계약기간 2년 동안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책상·의자 등 사무용품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입주기업 모집 절차를 거쳐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총 11개소, 24명의 청년기업가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역 창업전문기관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멘토링·컨설팅 지원, 디자인 제작 지원 등 입주 청년기업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입주 청년기업은 공간을 무상 사용하는 대가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입주민 영상 촬영 교육, 원데이 클래스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가고 있다.



공유시설 발굴로 지역주민과의 행복한 동행!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스럽던 공간이 새롭게 변모한 건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활기마져 띠기 시작하자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청년기업들과 함께 하는 원데이클래스, 작은 음악회 등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공간공유 협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북구는 공공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유시설을 발굴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유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Case

03

무료 정장 공유로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다



서울특별시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 지원



Check

장기간의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취업날개 서비스' 공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까?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1년 9월, 청년 구직자 539명을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면접 준비에 드는 비용은 평균 48만 원이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면접 복장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함께 면접 소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면접 정장 공유서비스인 ‘취업날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민간 협력으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공유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먼저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기업을 공모 및 선정하고, 기업의 정장 대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교졸업 예정자~만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정장은 물론 넥타이, 벨트, 구두 등까지 한 번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최초 이용 시에는 신체 치수 측정을 위해 대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및 택배 수령도 가능하게 했다.





첫해 대비 이용자 12배 이상 증가, 평균 만족도 97.9%

이용자는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비스 도입 첫해인 2016년 이용자 4,032명에서 2022년 4만 8,416명으로 늘어나 약 1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7년(2016~2022)간 총 21만 명이 넘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97.9%에 달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2022년 기준 10개소에서 제공 중이며, 청년들의 방문이 편리한 역세권 위주의 ‘취업날개 서비스’ 지점 운영으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2023년부터 3개소 추가 운영, 공유 확대

서울시는 2023년부터는 3곳의 지점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그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지점이 한 곳도 없었던 노원구, 강동구, 영등포구에 각 1개소씩 추가해 1월 30일부터 운영, 서울 전 지역의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고른 이용과 편의 도모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

〈취업날개서비스 2023년 지점 현황〉

연번	업체명	위치	연락처	비고
1	드림웍스(홍대점)	마포구 동교동 161-5, 3층 (홍대입구역 1번출구 도보 1분)	02-547-4782	기존
2	신촌점	서대문구 신촌로 87-8, 3~4층 (신촌역 1번출구 도보 1분)	070-8160-3010	기존
3	마이스윗 사당점	관악구 승방6길 34, 1층 (사당역 5번출구 도보 5분)	02-522-3010	기존
4	인터뷰 천호점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8층 (천호역 2번출구 도보 3분)	-	신규
5	영등포점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2층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도보 4분)	-	신규
6	슈트 논현점	서초구 신반포로 337, 2~3층 (논현역 5번출구 도보 1분)	02-3443-6009	기존
7	갤러리 충정로점	서대문구 신촌로 37길 75, 1층 (충정로역 7번출구 도보 3분)	02-363-6009	기존
8	스완제이(노원점)	노원구 동일로 1426, 5층 (노원역 3번출구 도보 1분)	-	신규
9	스타일딜리셔스(청담점)	강남구 선릉로152길 32, 5층 (압구정로데오역 4번출구 도보 10분)	070-4196-9606	기존
10	아베스컬렉션(이수점)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7, 3층 (이수역 5번출구 도보 5분)	02-1833-5389	기존
11	열린옷장(건대점)	광진구 아차산로 213, 5층 (건대입구역 1번출구 도보 1분)	02-6929-1020	기존
12	체인지 왕십리점	성동구 왕십리로 24나길 20, 4층 (왕십리역 2번출구 도보 5분)	02-6204-1517	기존
13	레이디 강남점	강남구 역삼로3길 17-6, 3층 (강남역 4번출구 도보 5분)	070-5220-0307	기존



육아 지원

경남 통영시 | 역할을 다한 이동민원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문화놀이터가 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육아고충, 육아용품·돌봄공간 공유로 함께 나눠요!

부산광역시 | '들락날락'할수록 커지는 즐거움, 신박한 놀이터가 있는 시청으로 놀러 오세요!



Case

01

역할을 다한 이동민원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문화놀이터가 되다



경남 통영시

키즈카페 · 어린이도서관과
지역주민의 희망나눔터



Check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던 이동민원실을 키즈카페 및 어린이도서관과 지역민들의 희망나눔터로 리모델링,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주민의 니즈 충족





방치된 이동민원실의 새로운 쓸모 찾기

경남 통영시 도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이동민원실은 별도 건물에 마련되어 운영됨에 따른 불편으로 그간 민원 발생이 빈번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로 통폐합하면서 이동민원실 공간은 폐쇄되어 방치하게 되었다. 통영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버려진 공간의 새로운 쓸모 찾기에 나섰다. 즉, 2000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회의와 간담회 등 부처 간 끊임없는 소통 끝에 ‘도천희망나눔터’ 조성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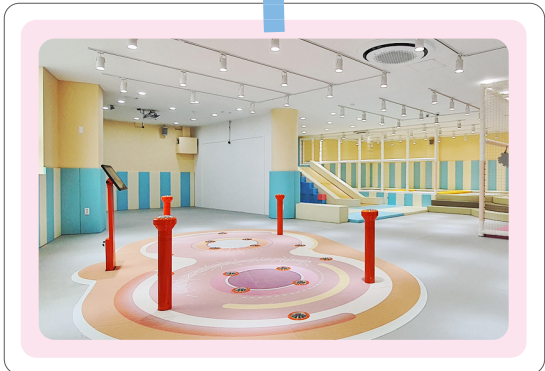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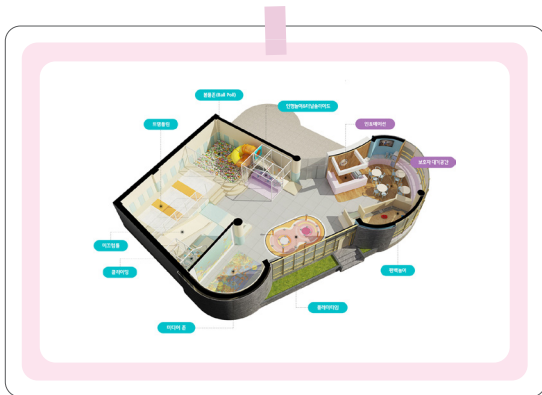
이동민원실이 있던 도천동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전무했다. 이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이후 폐쇄된 이동민원실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키즈카페) 및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지역민들의 희망을 나누는 활기찬 공간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도천희망나눔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버려진 공간을 공유 키즈카페·어린이도서관으로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었던 이동민원실은 리모델링을 거친 끝에 1층은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키즈카페)로, 2층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탄생한 도천희망나눔터는 지역 어린이들에게는 활기찬 놀이공간을, 지역민들에게는 쾌적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도천희망나눔터는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공간이자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는 쉼터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춘 개방·공유시설로 우뚝!**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탄생한 도천희망나눔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어린이 키즈카페 및 어린이도서관 시설에 대한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 주민 생활에 밀접한 개방·공유시설로 안착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ase
02

육아고충, 육아용품·돌봄공간 공유로 함께 나눠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용품 대여·돌봄공간 제공



Check

육아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고충을 덜고자 육아용품 공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육아용품 대여와 돌봄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육아 품앗이, 상시 프로그램 진행, 육아 정보 제공 및 공유의 활성화 도모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어떻게 덜 수 있을까?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의 세계로 뛰어들게 되면 만만치 않은 육아비용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고 해도 살인적인 육아용품 물가에 등골이 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영유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국 4.3%인 것과 달리 달성군의 영유아 비율은 6.8%에 이른다. 합계출산율(한 사람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25%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달성군의 군정 목표 첫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다. 이번 사업 또한 그 연장선에서 실시한 것으로, 육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주민의 고충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모차 대여, 장난감도서관 운영, 육아서적 대여, 공동육아 나눔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잠깐 사용할 육아용품, 굳이 사야 할까?

초보 엄마·아빠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사기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물품은 다름 아닌 유모차일 것이다.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유모차는 용도에 따라, 또 아이 성장에 따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장난감이나 서적도 마찬가지로, 아이 개월 수에 따라 매번 맞춰서 구매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든다. ‘이런 육아용품들을 굳이 사지 않고 대여할 수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들기 위한 기틀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점차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공유하는 육아용품과 육아공간

달성군은 2017년 ‘장난감도서관 1호점(화원읍 소재)’을 시작으로 현재 7호점까지 확대 설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달성군 권역 곳곳에 육아 공유공간을 마련했다. 이들 육아 공유공간은 연회비만 내면, 회원등록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모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토요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실시해온 유모차 대여사업은 6,000원의 이용료로 6개월간 대여할 수 있으며, 36개월 아이까지는 추가금

납부 후 연장이 가능해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연간 사용 건수가 장난감 기준 3만 6,000여 건, 유모차 기준 650여 건으로 빈번하게 대여되고 있다.

2014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주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난감을 사는 데 드는 연평균 지출액은 약 100만 원에 달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8년 동안 적어도 800만 원가량의 금액을 절약하게 된다. 저렴하게 구매해도 40만 원이 넘는 유모차 또한 유모차 대여사업을 통해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달성군의 육아 공유서비스는 단순히 물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파트 내 방치되던 공간을 리모델링 해 공공시설로 개방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유서비스로 육아 부담을 덜어낸 달성군**

육아용품 공유서비스는 직접 사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가정 육아의 부담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 물론, 현재 7곳에 장난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면적이 워낙 넓어 향후 육아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출장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달성군에서만큼은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남부 교육문화복지센터 1개소 개관 및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하드웨어에만 치중하지 않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해 육아 품앗이, 상시 프로그램 진행, 육아 정보 제공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달성군은 공유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계속 찾아 나서고, 지속적인 영역 확대를 꾀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Case
03

**'들락날락' 할수록 커지는 즐거움,
신박한 놀이터가 있는 시청으로 놀러 오세요!**



부산광역시

**시청 로비에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Check

**시청 건물 1층 로비를 나누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공유, 차별화된 체험과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기회 제공**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공유 문화공간 필요

부산시가 추구하는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체험과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청 건물 1층 공간을 나누어 조성했다.



도서관부터 메타버스까지 한곳에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시청사 1층 로비 992㎡에 놀이, 독서, 디지털체험, 학습 등의 기능을 담은 첨단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신개념의 놀이터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다.

즉, 이벤트·책·플레이·영어 등 놀이와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력 공간', 미디어아트전시관, 3D 동화체험관, LED 미디어월, 가상현실(VR) 실감공간 등 디지털 체험을 통해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상상력 공간', 인공지능(AI) 강좌, 코딩 과정 등의 다양한 미래기술 교육과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길이 18m의 몰입형 디지털 체험공간인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는 모네, 고흐, 클림트 등 인상파 화가의 명화 작품과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 작가의 작품, 미디어아트 작품 '웨이브'로 유명한 (주)디스트릭트의 '트로피컬 정글' 등을 감상할 수 있다. 3D 실감형 동화체험관에서는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진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과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이라는 콘텐츠를 동화구연가와 함께 만져보거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동화체험관의 이용 대상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이며, 부산시청 들락날락 홈페이지(library.busan.go.kr/openlib)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며, 평일은 9시~19시, 주말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부산광역시 | '들락날락' 할수록 커지는 즐거움, 신박한 놀이터가 있는 시청으로 놀러 오세요!



더 활발한 공유를 위해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2022년 9월 개관 이후 2개월간 4만 6,000여 명, 하루 평균 8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청 들락날락에서 온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민정책 공감토크-들락날락 편' 등 시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참여의 기회 또한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화공간 지원

경남 거창군 | 유휴공간에 불어넣은 생명력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유공간으로 재탄생

경상남도 | 닫혀있던 관사와 도민의 집이 모두를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 다양한 재능과 문화예술 나눔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나눠요!



Case

01

유휴공간에 불어넣은 생명력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유공간으로 재탄생



경남 거창군

상상생활 문화센터



Check

주민생활 요충지에서 10년이상 방치되어온 유휴공간을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문화이장 채용, 시설대관, 플리마켓(벼룩시장) 운영 등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공간

10여 년 전, 다른 부지로 이전하면서 물품창고 등의 용도로 사실상 방치되어온 구 농협하나로마트 자리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서도 주민들의 주생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건 다름 아닌 주민들이었다. 지난 2020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제도를 통해 해당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거창군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버려진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 주민들과 속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다.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공유 문화공간으로 재설계

거창군은 먼저 농협과 임대조건을 논의한 다음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민참여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을 4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대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1년여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과 같은 공간으로 재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아무도 찾지 않던 버려진 농협 지하창고에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경남신문 2021년 4월 8일 목요일 013면 사람



거창군·농협 거창군지부, 문화공간 조성 업무협약

거창군은 지난 6일 농협 거창군지부와 농협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군은 농협용 다기능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거창군지부의 지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농협은 해당 시설을 군에 장기임대해 주기보 했다. 김윤식 기자

거창군 거창읍 농협중앙회 지하공간

군농협 지하공간 커뮤니티 기반조성 프로그램 공유 워크숍 참가자 모집

공공시설장기자와 거창군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문화공간

2020.04.15 ~ 2020.04.22



거창읍 중앙로 133



상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

2022년 3월 개소식을 개최한 이 공간의 이름은 '모든 것을 상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상상생활 문화센터'로 지어졌다. 사업예산은 3억 3,000만 원,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3~21시 동안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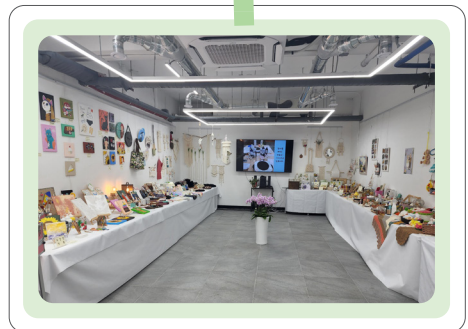
상상생활문화센터의 첫 번째 기능은 공간 대관이다. 지역 동아리 모임, 소규모 교육, 예술품 전시나 공연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나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덕분에 개관 후 지금까지 총 190회 2,100여 명이 대관 이용했다. 월평균 23회, 이용자 230명가량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매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상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지역 생활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로 나누어 퍼스널 컬러진단, 레진아트, 나만의 도시락 만들기 등 총 누적 22개 강좌에 35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했다.



또한 매월 1회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플리마켓은 벼룩시장으로, 저렴한 물품 거래를 통해 주민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이후 센터 이용 주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플리마켓은 지금까지 13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회당 평균 200여 명의 군민들이 방문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끌고 있다.



한편, 상상생활문화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창군 조례에 명시된 '문화이장 제도'를 활용했다. 문화이장은 지역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군민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효과와 더불어 향후 권역별로 본 사업이 확대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많은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목표

거창군은 성공적인 상상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버스킹과 함께하는 밤’,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말 문화 놀이터’, ‘거창 스트리트 댄스 파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거창읍 동서남북 권역별은 물론이고 먼 지역까지로 개방공유 시설 발걸을 확대해 모든 거창군민이 어디서든 개방 공간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Case

02

닫혀있던 관사와 도민의 집이 모두를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경상남도

콘텐츠 생산 및 공연·전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Check

도지가 관사 및 도민의 집을 개방하여
청년예술가 등이 공연·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경남의 핫플레이스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정





관사 및 도민의 집의 활용 방법을 찾다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도정 시작과 더불어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해 구 도지사 관사인 도민의 집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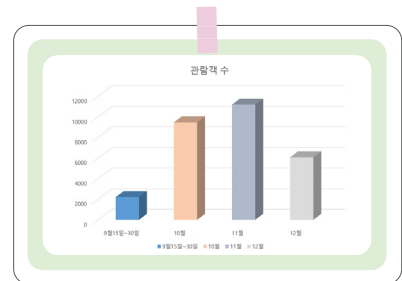
경남은 도지사 관사를 개방하기 전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팀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공간 조성이 가장 많은 의견(33%)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2022년 7월부터 예술인, 생활문화동호인, 청년세대, 청년문화기획자, 공공건축가 등 도민 의견수렴에 이어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후 도민의 집은 가로수길과 연계한 청년감성 문화공간으로, 도지사 관사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양한 콘텐츠 및 생활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도민이 만들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경남은 ‘관사’라는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현 시설 그대로 우선 개방했고, 작년 연말까지 2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또한, ‘도지사 관사 & 도민의 집’을 도민들이 좀 더 활발히 이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페스티벌 개최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웹툰 페스티벌, 수능생을 위한 힐링문화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시즌별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해, 12월 방문객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92.7%가 만족한다는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1(그래프)〉 관람객 수



〈그림2〉경남예술제 공연



〈그림3〉크리스마스 대금연주



〈그림4〉버스킹



홍보 및 콘텐츠 발굴로 개방·공유문화 활성화

이 같은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경남은 개방한 관사 및 도민의 집을 경남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도약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각종 유명 전시 및 공연을 기획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인근 가로수길을 찾은 청년들이 식당, 카페 이용 이외에도 문화와 더불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Case
03

다양한 재능과 문화예술 나눔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 골목문화놀이터’·‘감동생생 예술창작촌’



Check

‘감전 골목문화놀이터’와
‘감전 생활문화센터’·‘감동생생 예술창작촌’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품격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지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동네에서 가볼 만한 문화공간은 있을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은 동네 근처에서 놀이터처럼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그동안 이로 인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잖았다. 다행히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감전 골목문화 놀이터’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조성을 계기로 예술적 상상력을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누리게 되면서 오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화공간을 위하여

감전 골목문화놀이터 및 감전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이 강사가 되어 재능을 기부하고 작품을 전시하는 등 개인의 시설을 공공의 시설로 개방해 특색 있는 지역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주민 주도형 크로마하프 프로그램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크로마하프 악기를 자체 구입하고, 지역주민이 강사로 재능기부를 펼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시설을 공공의 시설로 개방·공유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경우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작가를 입주토록 하고, 여유 공간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유 부엌 등을 조성해 지역 소규모 공동 행사에서 활동하는 등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작가와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개방 중심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공간 공유로 지역문화 활성화 견인

감전동의 이러한 문화 공유공간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좀 더 쉽게 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크릴화, 원예 등 수강생의 수요를 반영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프로그램, 독서 논술 교실 등으로 문화활동 참여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공유 부엌은 주민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과 재첩 시식회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음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 공유, 일상 공유로 다 함께 행복한 도시**

한편 사상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힐링 타로 교실, 풍물 교실,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 등 좀 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상구는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 공유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VII

공유문화 조성

경기도 광명시 | 민관 협치로 지역공유문화를 더 풍성하고 더 활기치게

광주광역시 | 빈 공간을 지역공유 중심 공간으로, 시민의 발걸음으로 활기찬 공유문화 아지트



Case

01

민관 협치로 지역공유문화를 더 풍성하고 더 활기차게



경기도 광명시

공공시설 발굴 확대 및 개방 활성화



Check

공공시설 발굴 확대 및 개방 활성화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경기도 광명시의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서비스는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공유경제, 공공시설 개방 등 공유에 대한 부서 간 인식 차 또한 컸다.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도 숙제였다.

결국 광명시는 공유경제 및 공공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공유기업 육성과 공유단체·기업 지정, 인식확산을 위한 공유스쿨, 공공시설 개방·공유 활성화 사업, 민·관 협치 공유경제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022년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광명시는 먼저 공공시설 개방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만한 시설을 발굴하고자 도시 농업 및 텃밭 담당자와 유·무선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업무협의를 통해 광명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대관시스템 및 창업지원센터가 보유한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경기공유서비스와 연계했다. 이처럼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관별, 부서별로 접근한 결과, 2021년 말 대비 공유시설 개방 면에서 55%의 성장을 견인했다. 시민의 편의 증진 및 기관·부서 간 연대와 협력은 물론이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부서 간 인식 차도 좁힐 수 있었다.





공공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치

흔히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광명시는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 첫 번째는 광명시 시민참여커뮤니티위원회에서 개최한 ‘광명시 유휴공간 활용방안 포럼’ 참여다.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참여한 이날 포럼은 광명시가 가진 공공의 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포럼은 위원회에서 조사한 광명시 공공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과 공공시설 개방·공유서비스 플랫폼 소개,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공시설 현황에서는 개방되지 않는 운영시간, 대관료 등에 관한 조사 내용 등이 공유되었으며, 이어 사회경제센터장이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와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대관료를 받는 것과 노인복지관, 청년동, 여성비전 센터 등의 시설들이 나이 또는 성별 등으로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포럼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고민을 거쳐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는 광명시의 다짐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포럼은 민관이 함께 민간 및 공공의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남겼다.



두 번째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구체화를 위한 속의 토론회를 가졌다.

제안사업은 ‘유휴공간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행정이 참여해 ‘민간의 시설과 공공의 시설을 한 곳에서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광명시 유휴공간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의했다.



제안자는 민과 관의 시설을 동시에 검색, 예약하기 위함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으므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의 플랫폼 활용이 재정적,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열띤 토론 결과,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대신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것’과 ‘야간 및 주말 이용시설 확대’, ‘플랫폼 명칭 변경’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속의 토론회는 재정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더불어 민과 관이 함께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발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시설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광명시는 공공시설 발굴이라는 공급의 측면과 사용자 측면으로 나누어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오프라인으로는 보도 자료, 6만 명 이상 구독하는 광명 소식지, 리플릿 등을 매체로 활용했다. 온라인에서도 광명시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 카드뉴스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속의 토론회 및 포럼에서 나온 시민의 의견을 검토해 실행과 홍보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광명시 전광판, BIS, 키오스크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Case

02

빈 공간을 지역공유 중심 공간으로, 시민의 발걸음으로 활기찬 공유문화 아지트



광주광역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센터 조성



Check

보다 안정적으로 공유문화를 접할 기회와
공유공간에 대한 시민의 니스에
부응하고자 유휴공간인 진월국제테니스장을
광주광역시 공유센터로 조성, 공유문화 확산 추진





공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 확인

광주광역시는 2013년부터 공유 촉진을 통해 시설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공유문화를 접하고 자유롭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유문화 촉진을 위한 공유센터의 필요성

광주광역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노인건강타운 등이다. 이들 공간 외에 공유를 위한 공간은 어떻게 조성하고, 또 운영하면 좋을까. 아울러 제한된 예산으로 공유센터 조성이라는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우선 공유센터의 운영 목적은 공유문화 촉진으로 삼았다. 사실 공유란, 환경,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성격의 개념이다. 여러 분야에서 공유활동을 펼치고 있어 공유센터 존재 의미에 대해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설을 나누고, 공유공간을 대여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전파하는 등 공유라는 문화를 나누고 체험하고 전파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깊었다. 공유센터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해답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최소비용 최대효과, 유휴공간 이용

먼저 광주광역시는 공유센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제대회 이후 자주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 공유센터로 조성된 진월국제테니스장은 2012년 준공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10면을 더 추가로 조성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 후 일부 시설은 비어있는 기간이 많았으나, 연 1회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인해 공간의 사용 용도를 전면 바꿀 수는 없었다.

다행히 유휴공간 이용의 효율성에 공감하면서 상호 협조를 통해 공간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었고, 광주광역시 공유센터는 임대료 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된 공유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공유문화 촉진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센터를 중심으로 공유문화 활성화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 내에 자리 잡은 '광주광역시 공유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공간과 공유시설순환가게, 공유컨설팅, 재능공유 프로그램 등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평균 500여 명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유관기관과의 협업, 공유네트워크 구조화를 통해 공유문화 확산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

경남 의령군 | 공간의 변신은 무죄! 방치된 공공시설에서 주민이 복적이는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Case

01

공간의 변신은 무죄! 방치된 공공시설에서
주민이 북적이는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경남 의령군

생각 나눔 커뮤니티 조성



Check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각 나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공유누리
사이트 개방·등록으로 공공시설 활성화에 기여





골칫거리 공공시설의 현명한 변신

경남 의령군은 행정조직 통폐합, 인구감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공시설이 증가하면서 이들 공간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데 골몰해왔다. 그중에서도 임시회의나 단기간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다목적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해 다수의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주민 공모사업을 통한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

의령군은 방치된 공공시설의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등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했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이 찾지 않던 장소를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그 결과물로, 행정기구 통합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예비군면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주민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주민센터를 개소했다.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복돋기 위해 설계부터 착공까지 주민들과 협업했다.

인적이 드물었던 사무실이 주민들의 손을 거쳐 북카페로 재탄생한 이후에는 해당 공간을 공유누리 사이트에 등록하고

홍보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민공모방식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발굴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 시설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또한 마련했다.



 **숨어있던 공공시설, 개방공유의 새로운 길을 열다**

요약하면, 의령군은 공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간들을 발굴해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들 공간이 주민인 나의 공간이라는 애착심을 부여해 사업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준공 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유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환경을 만들었다.

공공시설·물품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시설·물품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연락처	(TEL) 044-205-2777 (FAX) 044-204-8934



공공시설·물품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시설·물품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